

2012새만금상설공연 시즌공연 3. JTV와 함께 하는 아리울 어쿠스틱 페스타

2012. 10



2012새만금상설공연 개요

- 공연기간 : 2012년 4월 28일 ~ 11월 4일(매주 월요일 휴관)
 - 장 소 : 새만금방조제 33센터 맞은 편 '아리울예술창고' 외 주요거점
 - 주 최 : 전라북도
 - 주 관 :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, 새만금상설공연추진단
 - 후 원 :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수산식품부, 한국농어촌공사
- ※ 새만금상설공연은 전라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만금을 찾는 관람객에게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.

○ 프로그램

- 아리울 이야기 콘서트 : 음악으로 읽는 새만금의 숨겨진 이야기
(매주 수요일~일요일 오후 2시 30분, 아리울예술창고)
- 바람이 머무는 작은 콘서트 : 바람쉼터에서 펼쳐지는 흥겨운 야외공연
(매주 화요일~일요일 오후 1시 30분, 새만금방조제 33센터 맞은 편 바람쉼터)
- 시즌별 테마 공연 :
5월 'Kids Fiesta', 8월 'Rock Fiesta', 10월 'Acoustic Fiesta'
- 부대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: 연날리기, 바람개비, 비눗방울, 종이배띄우기



'아리울예술창고'는

물의 도시에 처음으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는 공간입니다.

여기서는 시간을 멈추고 먼 바다의 일부가 되어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.

바람과 물의 환상을 경험하고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는 쉼터이기도 합니다.

푸른 물의 도시에서 **아리울예술창고**는 붉은 심장을 상징합니다.

곱게 단장한 **아리울예술창고**가 공연 초대장을 띄워놓고 두근두근 기다립니다.

2012 새만금상설공연 시즌공연 안내

시즌공연 아리울 어쿠스틱 페스타

- 아름다운 새만금의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낭만적인 어쿠스틱 감성의 릴레이 콘서트
- 새만금상설공연장만의 특별한 기획공연으로 관객들에게 풍성한 공연관람 제공

일정 안내

- 일시 : 2012년 10월 27일 토요일 ~ 10월 28일 일요일 / 오후 2시 ~ 4시
- 장소 : 새만금방조제 내 새만금휴게소 앞마당
- 출연진
 - 10월 27일 : 전영록/4CUS(박학기, 박승화, 강인봉, 이동은)/이용복/한동준/스타 피쉬
 - 10월 28일 : 해바라기 / 동물원 / 김세환 / 임지훈 / 휴먼스

운행 노선 및 시간표

- 운행시간표(27일과 28일 동일)

출발지	출발시간	도착시간	비고
전주종합경기장 정문 앞	12:30	13:50	※ 돌아오는 버스는 16:00 행사장에서 출발
군산롯데마트(수송동) 정문 앞	13:00	13:50	
익산롯데마트(영등점) 정문 앞	13:00	13:50	

출연진 소개

- 전영록 : 1980년대 대중가요계를 풍미했던 가수. '내사랑 울보', '종이학' 등으로 수많은 여성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원조 아이돌.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'불후의 명곡'을 통해 그의 노래들이 재조명되기도 하였다.
- 김세환 : 부드러운 음색에 팝 발라드적 요소를 가미한 음악으로 수많은 여성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포크 음악계의 거장. 현재 송창식, 윤형주와 함께 '세시봉 친구들'로 활동하고 있으며,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'불후의 명곡'을 통해 그의 노래들이 재조명받기도 하였다.
- 해바라기 : 한국 포크 음악의 대표주자. 1970년대 4인조 혼성그룹으로 시작해 현재 '이주호', '강성운' 듀엣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노랫말과 서정적인 멜로디, 뛰어난 하모니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다.
- 임지훈 : 음반 100만장이라는 가공할 판매열풍을 야기했던 가수. 현재까지 꾸준히 포크발라드를 선보이며 수많은 팬들을 몰고 다닌다.
- 이용복 : 한국의 '레이 찰스'라 불리는 시각장애인 가수. 1972년과 1973년 연속으로 MBC 10대 가수상을 받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.
- 4CUS(포커스) : 박학기, 박승화(유리상자), 강인봉(나무자전거, 자전거 탄 풍경), 이동은(푸른하늘)이 감미로운 보이스와 감성을 두드리는 잔잔한 멜로디를 무기로 뭉친 프로젝트 팀.
- 동물원 : 직장인들이 모여 만든 밴드임에도 불구하고 산울림 김창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중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받았던 포크 밴드. 이제는 아저씨가 되어버린 386세대들의 젊은 시절 이야기들을 통기타 선율에 얹어 듣는다.
- 한동준 : 1989년 '노래그림'이라는 그룹 멤버로 데뷔 후 1991년 '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 만으로'라는 곡을 통해 가요계에 데뷔하였다. 데뷔 후 '너를 사랑해'라는 곡은 몇 년전까지만 해도 프로포즈, 결혼식 등 다양한 곳에서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곡으로 널리 불리었을 정도로 가요계 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로써 굉장한 의미가 있는 곡이기도 하다. 그 외 '사랑의 서약' 등 다양한 곡들로 90년대를 풍미했던 또 하나의 전설이기도 하며, 현재까지 라디오 디제이 등 왕성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.
- 휴먼스 : 헤드뱅잉을 하며 뺑가리를 치는 보컬의 미칠듯한 열정과 블루스적인 기타 솔로의 우수가 묘한 조화를 이루는 락 그룹.
- 스타피쉬 :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록큰롤에 랩이라는 구성을 더한, 말 그대로 유니크한 파워를 지닌 남성 밴드.